

여수시, '우리동네 이야기' 접목...시민 소통 '차별화'

정기명 여수시장, 시민 대화 눈길
사전 인터뷰 통해 진솔한 분위기
짧은 만남 시간 보완해 주민 호응
"시민 일상에 와닿는 정책 만들 것"

여수시가 차별화된 주민 소통 방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5일부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대화에 돌입, 예년과 달리 올해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직접 담긴 '우리동네 이야기'를 접목시켜 보다 더 진솔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지난 5일 주삼동을 시작으로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5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추진 중이다.

시민과의 열린 대화는 정 시장이 여수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우리동네 이야기'를 송출, 소통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시민과 격의 없고 진솔한 대화가



지난 6일 정기명 여수시장이 월호동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서 한 시민과 대화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동네 이야기'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각 지역의 의견과 여수시에 바라는 점 등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주삼동, 월호동, 소라면 등의 열린 대화에서는 실제 '우리동네 이야기'에 주민들이 직접 출연해 마을 숙원사

업 해소에 대한 감사, 우리동네 자랑, 시정 당부사항 등을 생동감 있게 전했다.

다소 경직될 수 있는 행사 분위기를 띄워 보다 편안한 대화의 포문을 열고,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기에는 짧게 느껴질 수 있는 소통 시간도 보완해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드론으로 지역 전경과 명소

를 촬영한 영상은 각 읍면동의 현황을 한 눈에 담아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고,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와 집중도를 높였다는 반응이다.

여수시 시민과의 열린 대화는 전날까지 5회차를 진행했으며 오는 19일 문수동에서 재개해 3월10일 화정면까지 22회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현장에서 접수된 시민들의 제안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고, 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 관리·추진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시민의 소리를 담은 '우리동네 이야기' 당일 행사장에서의 1시간 남짓한 대화를 보완해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시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며 "앞으로 남은 읍면동의 '우리동네 이야기'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길지 기대가 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적 와닿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성군, 3년간 최대 3600만원

보성군이 지역 청년의 영농진입 및 차세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2025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3월5일까지 모집한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1985년 1월1일 이후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출생자)의 청년 중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독립경영 예정자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이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자금과 교육, 컨설팅 등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최대 3년 동안 월 90만원부터 110만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바우처로 지원받아 가계나 영농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예비) 농업인은 오는 3월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외에도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연 1.5%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자금은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업 시설 설치, 농기계와 종자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보성=양종수 기자

광양시 '농식품 가공' 교육생 모집 20일까지 접수, 30명 대상

광양시는 지역 농업인의 가공 기술 습득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2025년 농식품 가공교육(10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광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관심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초반 교육은 오는 3월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농산물 가공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식품 가공 트렌드 △농산물 가공센터 이용 방법 △식품가공 기초 △포장디자인 △가공 창업 인허가 절차 등이다. 기초반 수료자는 교육 일정의 75% 이상(3회 이상) 출석해야만 심화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심화반은 오는 4월2일부터 23일까지 총 4회 운영되며, 농산물가공센터 내 가공기기를 활용한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캔디류, 과자류, 식용유지 등 다양한 식품 가공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우게 된다.

기초·심화 과정을 모두 수료한 교육생은 광양농부영농조합법인에 가입 후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해 가공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 희망자는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및 광양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0일까지 이메일(pse0922@korea.kr) 또는 팩스(061-797-4176)로 제출하거나, 농식품유통과 브랜드가공팀(봉강면 왕바위길 138-29, 1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농식품유통과(061-797-3547)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용산 풍길방조제 개보수한다 장흥군, 총사업비 40억원 확보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용산 풍길방조제'가 선정돼 총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이뤄질 지역은 지난 2021년 7월과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농경지 침수가 발생한 용산면 풍길리 농경지로, 바다와 인접해 만조 시 더욱 피해가 커지는 지형적 여건과 1967년 준공돼 58년이 경과한 노후화 된 방조제 등 개보수가 시급한 지구였다.

군은 오는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제방(파라펫) L=2.1km, 배수로 L=1.5km, 배수갑문(4련) 교체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가 농경지 50ha에 대한 침수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김전환 기자

치유농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고흥군, 18일까지

고흥군이 2025년 치유농업 아카데미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반 교육생을 모집한다. 치유농업 아카데미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치유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는 20일부터 8월14일까지 총 18회차에 걸쳐 매주 목요일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기초과정(100시간)과 심화 과정(50시간)으로 나뉜다. 기초과정에서는 치유농업 자원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이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사업장 견학 등을 다루며, 심화 과정에서는 특수목적형 치유농업의 이해 및 관계기관 실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치유농장 및 농촌체험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는 고흥군 농업인으로, 모집인원은 25명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고흥군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여수시민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이동 헌혈 차량에서 헌혈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생명 나눔, 헌혈에 동참해 주세요"

오늘 오전 10시~오후 4시 생애 첫 헌혈, 지역상품권

여수시가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12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에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지속된 한

파로 헌혈의집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면서 혈액 보유량이 급감, 부족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헌혈 희망자는 이날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이동 헌혈 차량을 통해 헌혈하게 되며, B·C형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등 사전 기초 검사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

월 20만원, 24개월간 지원

고흥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대상자 자격요건을 올해부터 완화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를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고흥군에 정착한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전용면적 85㎡이

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부부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